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 눈에 복 있는 사람

성경: 마태복음 5장 3-10절

Tag: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라 (마5:3-10)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음이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영어로는 Godspel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복된 소리, ‘들으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복음이라 번역한다. 즉 복음이란 복된소식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대로 믿고 삶속에서 순종하면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자, 이상을 보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다. 구약성경에도 그들을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 말이 너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단순하지 않다. 휴대폰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전혀 울리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받더라도 먼저 경계하게 된다.

비록 아는 사람이라도 가치나, 이념이나, 관심사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출신이나 연고가 모두 다르다. 최소한 한가지 정도는 공통점이 있어야 비로소 말이 조금이라도 통한다.

가치나 이념이나 관심사나 성별이나 연령이 달라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뜻이 통하는 관계를 우리는 연고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고가 매우 중요한 나라다. 유교사상 때문이다. 부모자식간은 당연히 하고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를 연고로 취급했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이 연고관계가 혈연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연고는 별 의미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연고가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비록 헤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게 될지라도, 모두 함께 천국에서 재회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사돈의 팔촌 중에 천국에서 보지 못할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통하는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으로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 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이 담겨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 이제부터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렵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분발하여 열심을 내면 곧 쉽게 느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댓구를 사용하셨다. 각 명제마다 앞 부분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뒷 부분은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선언하는 내용이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가난한 자가 그 심령도 가난한 경우가 많고, 부요하면서도 심령 만큼은 가난한 자들은 드물다.

일단 확률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많고, 부자는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복을 받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고, 부자는 적은 중에 아주 희소한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이 진짜라고 가정한다면, 가난하든 부요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 자보다 훨씬 수가 줄어들 것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약간 긴장할 필요가 있다. 심령까지 가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확률이 적다.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잠시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는 있고, 나라 전체가 가난할 수는 있을지라도, 보통은 복을 받아 가난을 면케 된다. 분명 가난을 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 말하는 것일까?

겸허한 자를 말한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고 자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겸허는 자신 스스로의 자기 인식을 의미하고, 겸손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겸허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인정하시는 겸손이다.) 그래서 겸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지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거지들은 스스로를 포기한 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겸허한 자는 자아 인식이 솔직하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그 말은 자신의 실존 앞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감한 사람이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초라한 중예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보니, 스스로 힘에 겨워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다.

과거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암울할 때,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세운적이 있다.

그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결코 돕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제철산업과 조선산업을 일으키고 싶어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난한 나라에 돈을 꾸어

주지 않았다. 고생 고생 끝에 독일에서 대출을 핑계로 광부를 보내줄 수 있느냐, 간호사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광부를 모집했는데, 대졸자들도 학력을 숨기고 광부로 독일에 갔다. 그들의 임금을 저당 잡고 자금을 빌려 산업을 일으켰다.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70년대에는 사우디에 노동자를 파견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무더위에서 미치도록 일을 했다.

미국이 월맹과 싸울 때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전쟁을 하러 파병되었다.(64-73년까지 10년간. 우리는 미국이 싸울 때 함께 싸운다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이므로) 그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방에도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국방력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미 군사 동맹은 더욱 끈끈해 졌다.

이 시기 우리나라 교회도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온 교인들이 성령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에 열정적이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하고 기도했다. 그 결과 한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할렐루야!~ 한국인의 겸손이 세계를 울렸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짝을 이룬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픈 일을 당하여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것을 말한다.

슬픈 일인데 무덤덤한 사람도 있다. 남의 불행 앞에 소 닭보듯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불행 앞에 크게 공감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죽음에 대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자들 기득권세력에 대해 공분하였지만(약간은 기획된 느낌), 이제는 SNS의 발달로 주변의 갑질하는 자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들의 갑질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협박이나 거짓증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부당함 앞에 겁먹고, 아무말 하지 못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다.

온유함은 폭력보다 강하다. 그러나 맞서기가 쉽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과 온유한 것은 사실 따로 따로가 아니다. 생존의 본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모든 힘을 쏟아서 몸부림치는 삶을 말한다. 왜냐면 쉽게 패거리를 만들거나, 폭력을 동원하거나, 유연 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악하고 비열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결국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 어디에든 거짓말쟁이, 협박하는 자들, 폭력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덤벼들어야 한다.

온유함이란 그들이 사용하는 악하고 쉬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싸우는 자들을 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밥이 아닌 의에 주린 자들이다.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넥타이부대.** 물론 앞장서는 자들은 정부의 전복을 기획하는 자들이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불의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맞섰다. 일부

화염병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일반 정의감에 불타는 일반 비폭력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주사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당시의 정의감을 이용했다. 덕분에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시민들이 많은데, 그때에 비하면 국지전 수준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먹고 배부른 것만은 확실하다.

그때 이후 대한민국은 공의를 되찾는데 매우 열정적인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좌편향된 결과를 낳아 다시금 우편향되도록 하는 것이 공의가 되어버린 실정이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 공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교과서이다. 일부 좌편향된 자들이 성경까지 뜯어 고치려고 하니 우리는 이 점을 경계 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눈에 복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친구 눈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검은 것은 검다고, 붉은 것은 빨강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짐하자. 아멘.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5:3-10)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